

日帝 强占期 京城圖書館의 變遷 過程에 관한 考察

A Study on Changing Process of the ‘Kyung Sung Librar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f Korea

송 승 섭(Sung-Seob So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일제 강점기 경성도서관의 변천 과정 분석 |
| II. 선행연구 및 경성도서관 연혁 조사 | IV. 결론 |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 강점기 京城圖書館의 변천 과정을 밝히려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1) 일본인 山口精(아마구치 세이)이 설립한 「일본인상업회의소」의 경성도서관 2) 윤익선 등이 취운정에 건립한 경성도서관 3) 이범승이 종로 탑골공원 옆에 세운 경성도서관이다. 이 도서관들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였고, 동시에 이 세 도서관의 상호관계와 다른 도서관과의 관계 역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山口精의 경성도서관 장서는 이후 두 도서관에 일부 계승되었고, 두 도서관은 당대에 가장 활발한 공공봉사를 실천하였지만, 일제의 영향 하에서 독자적인 발전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경성도서관, 한국 도서관사, 윤익선, 이범승, 山口精, 일제 강점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changing process of ‘Kyung Sung Librar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rough the books and Journals of Korea and Japan. The subject scop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Kyung Sung Libraries’ in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ounded by Japanese named, ‘San Gu Jung(Yamaguchi Sei)’ 2) ‘Kyung Sung Libraries’ founded by ‘Yoon Ik Sun’ in ‘Chiwoonjung’ 3) ‘Kyung Sung Libraries’ founded by ‘Lee Bum Sung’ beside ‘Jongno Tapgol Park’. This study studies each three libraries and simultaneously, relationship between mutual relation of these three libraries and other libraries. As a results, the books of San Gu Jung(Yamaguchi Sei)’s library were inherited to those of other two libraries. Also, Despite of eagerly practicing public service of the age, however, independent development of each of two library founded by Koreans was very limit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colonial.

KEYWORDS: Kyung Sung Library, History of Library in Korea, San Gu Jung, Yoon Ik Sun, Lee Bum Sung, Japanese colonial era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부교수(libsong@mju.ac.kr / ISNI 0000 0004 6322 6760)

• 논문접수: 2020년 2월 17일 • 최초심사: 2020년 2월 27일 • 게재확정: 2020년 3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71-90,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202003.71]

I. 서론

역사를 정립한다는 말은 어떤 역사가 올바르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져 있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도서관 역사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도서관 역사는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나 내용이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소속 도서관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기관지나 운영하는 블로그에서조차 사실이 아닌 역사를 기술, 게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사를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¹⁾

일제 강점기를 다룬 도서관사 논문이 적은 것은 자료가 부족하고, 그 자료조차 수집이 쉽지 않으며 일제의 편향된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는 자료의 제한성이다. 이는 당대의 신문기사와 같은 사실의 단편들을 모아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듯 역사적 진실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경성도서관의 변천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성도서관’은 고유명사지만 일제 강점기 동안에 시기별로 다양한 ‘경성도서관’이 있고, 개개의 도서관이 모두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만 이들이 언론 기관을 통해 ‘경성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어 혼란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여 학술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먼저 그간 개략적 사실만 조사되었던 1908년 일본인 山口精이 세운 京城圖書館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다음, 1920년 윤익선 등이 가회동 취운정에 세운 경성도서관과 山口精의 경성도서관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다시 윤익선 등이 설립한 경성도서관과 1921년 이를 인수한 이범승이 탑골공원에 세운 경성도서관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1926년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은 일제의 경성부립도서관(종로분관)으로 양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의 운영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짚어보았다.

이상의 연구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경성도서관의 변천 과정을 밝힘으로써 잘못된 사실은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 관련 신문기사, 기관 연혁 등을 대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행, 『도서관이야기』(2019. 12) 「일제강점기 도서관의 기능과 독서문화」: 5-6 에서는 한국 최초의 도서관 ‘대한도서관’을 ‘한국도서관’으로 표기하고, 이 “한국도서관이 경성도서관으로 흡수되었다”라는 잘못된 역사를 기술하였다(송승섭 2019, 220-224 참조).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블로그 ‘도서관이야기’(<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dibrary1004>)에서 보면, ‘경성부립도서관 사회관’ 사진과 또 다른 기존의 ‘경성도서관’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종로도서관’ 항목(<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2920>)에서는 경성도서관 최초 설립자가 ‘윤익선’이 아닌 ‘이범승’으로 표기되는 등 잘못 기술된 도서관 역사가 산재해 있다.

II. 선행연구 및 경성도서관 연혁 조사

1. 선행연구

이 연구의 진행을 위해 조사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山口情(1917)의 『京城圖書館概況』이다. 1908년에 세워진 경성문고가 경성도서관으로 발전하여 1919년 폐관하게 된 경위는 그간 간략하게 소개되었지만 이를 깊이 있게 다룬 연구가 없었는데, 이 자료의 분석이 큰 도움이 되었다. 『京城圖書館概況』은 소책자지만 이 도서관의 연혁, 장서 및 이용현황, 실적과 함께 경성도서관 규정, 기증·기부자 명단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의 도서관 사정과 이용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 宇治郷毅(1985, 1988)의 두 논문, 「近代韓國公共圖書館史の研究」는 山口精, 尹翊善, 李範升 등 시대별로 개개의 도서관 설립자가 바뀌어 가는 과정의 경성도서관 전반의 흐름과 일제 강점기 전반의 도서관 현황과 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자료와 일본 자료를 모두 참고하여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세세한 각주를 통해 당시 상황을 치밀하게 고찰하였다. 또한, 奥田浩司(2016)의 『京城圖書館の設立と 利用狀況についての一考察』은 山口情의 『京城圖書館概況』을 분석하고, 宇治郷毅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어 경성도서관의 변천 과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국내 연구로서 박희영(1963)의 연구는 근대 한국도서관사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체적인 일제 강점기 도서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위해 살펴보았다. 이흥구(1964)의 연구는 경성도서관의 경영, 특히 회계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이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양도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근본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가 되었다.

백린(1973), 안춘근(1975), 배홍식(1976)의 연구는 도서관별 연혁 조사와 일부 연구에서 제기된 山口精의 경성도서관을 윤익선이 인계, 또는 계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다. 권은경(1981a, 1981b)의 두 편의 논문은 일제 치하의 공공도서관 현황 및 운영 상황 전반을 다룬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당시 일제의 통치 및 교육 철학, 조선총독부의 도서관 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는데 사회 통계를 활용하여 당시 사회를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담겨 있어 유용했다.

윤금선(2009)은 민족적 관점에서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 실태를 고찰하였다. 당대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도서관 운영프로그램과 독서 경향을 조사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 송민호(2015)의 연구는 조선총독부의 자료수집 원칙, 경성도서관의

문헌 분류와 지식체계 관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였다.


2. 경성도서관 연혁 조사

선행연구를 통해서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이름은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역사를 갖고 있는 경성도서관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단원 3에서 다룬다. 이 장에서는 우선 선행연구 내용과 당대의 신문기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4개의 경성도서관과 관련 도서관의 연혁을 조사하여 각각의 도서관 설립·폐관 시기와 당시 명칭을 구분하여 그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경성도서관의 시기별 구분과 주요 연혁

설립자(기관)	도서관명 (설립·폐관연도)	주요 연혁
山口精	경성문고(1908-1911) 京城圖書館(1911-1919)	· 1908.9. 일본인상업회의소 내, 京城文庫로 시작 · 1909.2.1. 주자동에서 남창동으로 신축·이전 (일반공중에게 무료열람) · 1911.8.29. 경성도서관으로 개칭- 1919년 폐관
尹翊善	경성도서관(취운정) (1920-1923)	· 1920.11.5. 山口精이 운영한 경성도서관의 장서를 구입하고, 일부는 기증받아 설립 · 1920.11.27. 경성도서관으로 개관 · 1922.9.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에 흡수되어 경성도서관 취운정 분관이 됨 · 1923.7.1. 폐관 (1924.4. 1만 여 장서를 「간도동흥중학교」로 이전)
李範升	경성도서관(탑골공원) (1921-1926)	· 1921.9.10. 탑골공원부지에 설립, 일부 운영 · 1922.9. 경성도서관으로 개관 · 1923.7.28. 신관 석조 3층 건물로 준공·개관 · 1926.3.25. 경성부 경성부립도서관에 양도됨
日帝 경성부	경성부립도서관종로분관 (1926-1945)	· 1926.4.1. 경성도서관은 경성부 관할,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개칭됨
	경성부립도서관 (1922- 현, 남산도서관)	· 1922.10.5. 명동에 개관(구 한성병원) · 1927.5. 중구 소공동 115번지 대관정 자리 건물로 이전 · 1928.6 동 지면에 신관 3층 건물 준공 · 1945.9.28. 서울시립남대문도서관으로 개관 - 이후 용산구 후암동 30-84번지로 신축 이전 후, 현재 서울시교육청 남산도서관이 됨

한편, 경성도서관의 외관(전경) 사진도 도서관 명칭과 마찬가지로 여러 논문과 신문기사에서 일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당대의 신문기사와 관련 자료 고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경성도서관’의 모습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p>① 山口情의 京城圖書館(1916)</p>	<p>② 舊 養樂臺 건물, 京城圖書館 最初 本館(1921)</p>
	
<p>③ 李範升이 新築한 京城圖書館(석조 3층)</p>	<p>⑤ 京城府立圖書館 新築 건물(사회관, 1928)</p>
	<p>④ 1967년 7월 21일, 철거되기 전 종로도서관</p>

〈그림 1〉 敬聖도서관의 옛 모습²⁾

2) 사진 ①은 山口情의 京城圖書館으로 『京城圖書館概況』 첫 장에 게재되어 있다. 사진 ②는 탑골공원 (구)양악대 건물로 무상임차하여 사용한 敬聖도서관 본관이다(동아일보 1921년 12월 6일). 사진 ③은 李範升이 신축한 京

Ⅲ. 일제 강점기 경성도서관의 변천 과정 분석

1. 山口精의 京城圖書館

경성도서관은 1908년 9월, 처음 '京城文庫'로 경성 수정(壽町, 현 남대문로 壽洞)에 있는 「일본인 상업회의소」내에 서기장 山口精(아마구치 세이)에 의해 산업 및 상공업 관련 조사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朴珪壽(1807-1877) 소유의 唐本 漢書 1,300여 책과 관공서 간행물, 각종 통속서 등을 추가 수집하여 이듬해 1909년 2월 1일 개관하여 일반공중에 무료로 공개했지만 서고, 열람실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1911년 8월 남미창정(南米倉町, 현 남창동)으로 신축 이전하고 '京城圖書館'으로 개칭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독부 소관 200여 평 부지를 임차하고 신축하는데 山口精이 편찬한 『朝鮮産業誌』 수익금을 합하여 2천5백여 원이 투자되었고 당대 통감, 총독, 각부 장관과 많은 유지의 기증으로 1916년에는 1만 6천여 책으로 늘어났다(山口精 1-2, 표 2 참조).

〈표 2〉 藏書類別表³⁾

단위: 권

부문	유별	일·한서	양서	계
1문	신서, 종교	38	6	44
2문	철학, 교육	350		350
3문	문학, 어학	667	7	674
4문	역사, 전기, 지리, 기행	731	3	734
5문	국가, 법률, 경제, 재정, 사회, 통계	951	21	973
6문	수학, 이학, 의학	189	4	193
7문	공업, 병사, 산업, 미술(제 예술)	639	2	641
8문	유서, 총서, 수필, 잡서	2,810	145	2,955
계		15,376	188	15,564

경성도서관은 1919년 폐관될 때까지 당시 경성의 유일한 사립도서관으로서 최대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개인 사재로 운영한 도서관이었지만, 90여 명의 특별 기증자 및 찬조자

城圖書館이다(매일신보 1926년 4월 1일,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 1924년 9월 18일 참조). 사진 ④는 서울역 사박물관 제공(출처: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 I: 1966-1967』(2013), 246) 사진으로 경성도서관 구관과 신관이 나란히 보인다. 전봇대 앞 1층 양옥 사진이 구관이고 바로 옆 오른쪽 석조건물이 신관이다. 사진 ⑤는 일제가 1928년 준공한 京城府立圖書館 신관이다(京城府 編. 京城彙報 1-5).

3) 이 분류표는 일본의 '和漢書分類表' 체계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중점사항이 아니어서 여기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다만 이후 조선총독부나 만철경성도서관, 경도대학부속도서관 분류표와 영향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유재야 98-123).

가 있었고, 200여 명의 도서기증자, 신문·잡지를 기증한 200여 개의 신문사·잡지사 및 출판사와 각종 기관이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총독부를 위시하여 관련 기관 등의 범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운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 이와 같은 특혜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관련 제 자료들이 일본인의 사업 및 식민 통치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일병합 전, 일본인에 의해 조선에 설립된 도서관은 부산도서관, 강경문고, 목포도서클럽과 경성문고 4개 관이 있었지만, 순전히 개인이 설립한 도서관은 경성도서관 단 하나였다. 경성도서관은 다음의 4가지 점에서 한국의 도서관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宇治郷毅 1985, 6-7).

첫째, 이 도서관은 설립 초기부터 참고도서관 성격을 가졌다. 山口精의 『京城圖書館概況』에서도 “산업 및 상공업 조사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창설하였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둘째, 이 도서관은 당시 최대 장서수를 보유하고, 장서 내용도 충실했다. 폐관 시에 장서 수는 1만 6천 권에 달했으며 참고도서류, 관청 자료 등 쉽게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셋째, 1920년 11월 그 장서 대부분이 윤익선 등이 설립한 ‘경성도서관(翠雲亭 도서관)’에 인계되었다. 또한, 그 장서의 일부(신간 서적)는 이범승의 경성도서관을 거쳐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의 장서로 승계되었다.

넷째, 도서관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1915년도 통계에 따르면, 개관일수 연 303일, 입관자수 5,420명이고 열람한 책 수는 20,637권에 달했다(山口精 3-4). 이용자 중 80%가 일본인이고, 20% 정도가 조선인이었다. 또한, 1912년에 「京城圖書館圖書月報」라는 홍보 잡지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조선에서 일본인에 의해 만든 최초의 ‘도서관보’였다.

상술한 내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참고도서관 성격이라는 것은 이 도서관이 ‘조선인상업회의소’의 조사와 연구 지원 목적을 가졌다는 점이다. 실제, 그 성과의 하나로 山口精은 『朝鮮産業誌』를 편찬하였다.⁵⁾ 이 책은 당시 한국의 농업·상업·공업·산림·광업·어업·통화·금융·교통·운수에 관한 각지의 사정을 조사하여 실은 것인데, 상·중·하 세 권으로 이루어졌다.⁶⁾ 山口精은 1911년 7월 5일, 이 책 10부를 경성도서관 이름으로 순종황제에게 바쳤다. 이에 대해 순종황제는 7월 13일 경성도서관에 기부금 150원을 하사한 바 있다(아래 참조).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에서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농상업, 공업에서부터 산림, 광업, 어업, 통화, 금융, 교통, 운수에 이르기까지 각지(各地)의 사정을 조사하여 상·중·하 모두 30책(冊)으로 편집하였다.】 10부(部)를 올렸다.⁷⁾

4) 山口精, 9-17쪽 내용 중에 기증, 찬조, 기부자 등의 명단을 분석하여 내린 결과이다.

5) 山口精, 『朝鮮産業誌』上·中·下卷, 寶文館, 1910-1911(복간 民俗苑, 1992).

6) 위키실록사전(<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 ‘경성도서관’ 참고. [cited 2020.2. 3].

경성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일백오십원의 기부금을 하사하다.⁸⁾

이렇듯 경성도서관은 참고도서관, 즉 산업 관련 전문도서관 역할을 하였고, 일제 치하의 경성에서 최고 수준의 다수 장서를 소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도 활발하였다. 물론 한국인 이용자는 20% 정도지만 당시 한국인의 일본어에 대한 문맹률을 감안하면,⁹⁾ 소수 층 일부에서는 적지 않은 이용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山口精 3-5, 아래 표 참조).

〈표 3〉 개관일수 및 열람 인원

연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개관 일수(일)	280	313	280	305	287	307	303
입장 인원(명)	20,020	30,079	4,215	6,634	6,702	6,695	5,420

다음, 당시 「毎日申報」 기사를 통해서도 경성도서관의 위상과 도서관 이용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¹⁰⁾

- 일반 열람자의 학업 편의를 위해 경성도서관 야간개설
- 전등료와 난로 등의 비용으로 대인 3전, 소인 1전의 입장료를 징수(1911년 11월 14일)
- 총독의 서적 기증: 寺内총독은 6일 경성도서관에 대하여 서적 80여 책을 기증하였다. (1912년 4월 10일)
- 경성도서관 열람자 수, 일 60명 관리(1913년 3월 4일)
- (서고 정리를 위한) 경성도서관 확장-휴관(1915년 10월 26일)
- 총독부의 도서기증: 총독부는 大正 五年 대장성 통계 3부 42편 통계서 170여 책을 경성도서관에 기증(1917년 1월 24일)
- 入澤部長과 도서관
경기도내 1부장은 11일 오후 4시에 경성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실을 시찰한 후 도서목록을 점검하고 유지 방법에 대해 문의(1917년 3월 14일)

7) 京城圖書館進《朝鮮産業誌》【自農工商業, 以至山林, 鑛業, 漁業, 通貨, 金融, 交通, 運輸, 各地事情調査, 編輯上中下共三十冊】十部. (『순종실록부록』 4년 7월 5일)

8) 十三日, 賜京城圖書館寄附金一百五十圓, 爲其發展也. (『순종실록부록』 4년 7월 13일)

9) 1913년 한국인으로서 일본어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인구에 0.68%에 지나지 않았고, 1925년까지도 5.7%에 그쳐 대부분 도서관을 이용할 능력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의 봉사대상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朝鮮總督府, 昭和元年度市政年報, 172-173.).

10) 「京城日報」로 출발한 「毎日申報」는 1910년 일제 강점기 동안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기까지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다. 본 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의 검색 결과이다.

위 기사에서 여러 가지 추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경성도서관은 일본인 상공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야간 열람을 통해 일반 대중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과 1911년 11월 이후 약간의 입장료를 받았다는 것, 열람자 수와 도서관 확장·휴관과 같은 도서관 상황이 신문에 소개되었다는 점, 경성도서관이 총독부의 기증과 관리를 받는 주요 기관이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인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도서관을 이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한일병합 이후 1910년대는 소위 무단 통치 시기로 이른바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도서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시기였고, 이 기간의 교육은 1911년 제정된 「조선교육령」 제2조,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맞추어 조선인을 “충량한 일본인”으로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일본어를 보급·습득시켜 될 수 있는 한 소액의 경비로 초보적인 실업 교육을 달성하는 것이 일본의 교육목표였던 시대였다. 식민지인의 교육이 높아지면 민족적 자각도 높아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宇治郷毅 1985, 7; 권은경 1981a 14).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山口精의 경성도서관이 왜 폐관되었고, 그 장서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먼저 폐관 이유는 경영난이라고 했다. 개인 사재 출연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주장도 있다. 회사 중역으로 승진하여 부임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관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奥田浩司의 글¹¹⁾과 山口精의 약력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는 1910년 ‘경성일본인상업회의소’ 서기장이 되었고, 1912년부터는 경성도서관 경영에 전념하였으나, 1919년에 회사 중역이 되어 경성도서관을 폐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29년 이후에 행적을 보면 통영읍장, 동래읍장, 울산읍장을 역임하였다(宇治郷毅 1985, 20. 脚注 13).¹²⁾ 이러한 이력으로 볼 때, 그가 당시 경성도서관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경성도서관부속동양서화협회’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잡지인 『美術及工藝』¹³⁾를 발행(1917년 4월 창간)하기도 하였다.¹⁴⁾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볼 때, 山口精은 다방면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로서 평가할 수 있다.

한가지 이 시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山口精의 경성도서관이 1919년 중에 폐관되었고 윤익

-
- 11) 奥田浩司는 글 40쪽에서 李範升이 京城新聞에 투고한 “京城圖書館と私”에 기술한 것을 인용하였다.
 12) 이밖에도 1917년과 1921년 사이의 행적을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근현대인물 자료』를 통해 찾아보면, 그가 실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관련 기록: 1917년 12월에 富田儀作과 함께 전 조선 小工業의 조사에 착수하여 1922년 10월까지 조선 전체 13도의 주요 도읍을 시찰하였음. 그 결과 1918년 11월 慶尙南道 統營에 ‘螺鈿漆器株式會社’를 창립하고 자신이 전무 이사에 취임. 1921년 2월 澤田 慶南知事의 양해를 얻어서 ‘統營面立病院’을 세움. 1921년 5월 이후 체신국에 陳情 請願하여 ‘統營郵便局’을 설치하게 함 등).
 13) 김달진미술관 연재칼럼(28):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잡지는 『미술과 공예』다.’
<http://www.daljin.com/column/12218> [cited 2020.1.7].
 14) ‘경성도서관부속동양서화협회’는 경성도서관 부속기관이었고, 그 내용은 『京城圖書館概況』(p.20)에 회칙으로 게재되어 있다.

선의 경성도서관이 1920년 12월에 개관되기까지 1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 1920년 7월 21일,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경성 용산지역에 '滿鐵京城圖書館'을 설립한 것이다. 이 도서관은 일본의 대륙 정책 수행에 봉사하는 자료 제공 기관의 입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점령지로 확대되어 나갔지만, 설립 초기에는 滿鐵 직원과 그 가족,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봉사하였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관련 기사이다.

만철경성도서관은 “일반 공중의 閱覽에 供하기 위하여 滿鐵京城圖書館, 지난번 이십일부터 열렸다, 우리의 지식보고는 도서관”(每日申報, 1920년 9월 1일)¹⁵⁾

“만철 사원과 그의 가족들의 수양에 겸하여 일반 공중의 열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달 20일부터 개관한 경성도서관은 그 뒤로 도서가 점점 증가하여 지금은 1만 2천 부 이상에 달하고 9월 중에는 삼천 여부가 증가할 것이요. 개관시간은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요”

이 기사에는 만철 사원과 그 가족들의 수양에 도움을 주고 일반 공중의 열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관하였다는 점, 개관 당시 장서가 1만 2천 부에 달하고 다시 9월 중에 3,000여 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개관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는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기사 끝부분에 있는 다음 내용이다.

“무료로 공개해도 사원 외에 다른 사람은 비교적 적게 입장하는데 글 읽고 싶어 하는 사람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경성 유일의 도서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 것이다. 지식의 보고는 여러분의 입장을 환영하는 도다.”(每日申報, 1920년 9월 1일)

이 기사를 통해 만철경성도서관은 滿鐵 직원과 가족을 위한 전문도서관 성격의 도서관이었지만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성 유일의 도서관”이라는 기사 내용을 통해서, 이 도서관이 山口精의 경성도서관 폐관과 윤익선의 경성도서관 개관 사이에 존재한 당시 경성의 하나밖에 없었던 도서관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¹⁶⁾

2. 尹翊善의 京城圖書館

1920년대는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민족의식의 높아지던 시기이며, 일제의 소위 '문화통치'시대로 도서관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때이다. 바로 이 시기, 1920년 11월 5일 지금의 종로구 가회동, 조선귀족회 소유의 취운정에 근대적 도서관인 경성도서관이 설립되었다. 이 도서관의 설립은 윤익선, 윤양구, 김장환에 주도되었으며, 관장에 김윤식, 관감에 윤익선, 이빈승, 관사에

15) 이하의 신문기사는 원문이 아니라 1920년대 한글을 현대어 수준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16) 이후 1925년 철도도서관으로 개칭한 후에도 일반인을 위한 열람 봉시는 계속되었다(동아일보 1925.10.31).

윤양구, 김장환, 김려학 등이 임명되었다.¹⁷⁾

이 도서관은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립공공도서관이다. 도서관 설립은 상기 주도자 이외에도 당시 조선 각계각층 유지의 협력이 있었고, 11월 27일 개관식에는 내빈 300명, 학생 수천이 참석하고, 참석자 대부분이 ‘관우(館友)회’에 가입하였다.¹⁸⁾ 이 일은, 이 도서관이 당시 얼마나 많은 대중의 기대 속에서 설립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 도서관의 창립을 주도한 윤익선과 김윤식은 단순한 도서관으로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민족운동의 기지로써 설립한 것이다. 김윤식(1835-1922)은 조선 말기에 개화와 정치인으로서 저명한 문학자이다. 김홍집 내각의 외무대신을 맡아 한일병합에 즈음하여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이 되어 자작을 하사받았으나 3·1운동에 가담하고, 작위를 박탈당한 채 유배된 민족주의자였다. 윤익선(1871-1946) 또한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교장 재직 중인 1919년 3·1운동에 직면하여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체포, 투옥되었다. 옥중에서 민족 계몽을 위한 도서관 계획을 세우고 출옥 2개월 후에 경성도서관을 설립했다(宇治郷毅 1985, 14). 그 후, 중국 간도에 동흥중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말년에 전향하여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¹⁹⁾

그러나 그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초기 도서관의 설립 동기는 민족의식의 발로에서 나왔고, 조선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 계급의 발전”과 “학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또한, 조선인을 위한 고등교육이 제한되어 있던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그 의의를 깊게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로도 볼 수 있다(백린 80-81, 안춘근 36).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山口精의 ‘경성도서관’과 윤익선의 ‘경성도서관’과의 관계이다. 이 도서관의 설립에 관해서는 山口精이 남창동에서 경영하고 있었던 경성도서관을 “인수한 것”이라든지, “재건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백린 82, 안춘근 36). 그것은 양쪽이 같은 도서관 명칭을 사용한 점과 윤익선 등이 山口精이 경영한 도서관 장서를 구입·인계받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山口精이 직접 장서를 팔았거나 인계한 것은 아니다. 山口精의 장서는 경영을 위임받은 橋本茂雄(하시모토 시게오)와 松本正寛(마츠모토 마사히로) 등이 윤익선 측에 매도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山口精과 윤익선 사이에 도서관 경영에 대해서 어떠한 인수인계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상적 측면에서도 동일성을 갖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운정의 경성도서관 측에서 山口精의 장서를 새로운 경영자로부터

17) 「京城日報」 1920.12.26. 3面(「寄贈の圖書殺降して忙しい京城図書館」)

18) 「毎日申報」 1920.11.29.

19) 윤익선은 일본 우익단체인 흑룡회의 후원을 받아 내선일체와 총량한 황국신문화를 기치로 내걸고 조직한 대동일진회의 임시회장을 맡는 등 친일 활동이 밝혀져 서훈이 취소된 바 있다. 또한, 이후 경성도서관을 새로 설립한 이범승도 1924년 4월 반일운동 배척과 일선융화(日鮮融和)를 표방하며 조직된 동민회(同民會) 이사 겸 평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친일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2009. 『친일인명사전』 제2권, 686-687, 865쪽 참조).

구입한 것은 맞지만, 이에 더해 당시 조선인들이 기증한 장서도 있었으며,²⁰⁾ 한국인 자본으로 다른 장소에서 독자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橋本茂雄은 「行悩んだ図書館」²¹⁾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나는 松本正寛군과 공동으로 남창동 경성도서관을 전 경영자 山口精으로부터 인수했지만, 도저히 이것을 경영할 능력도 시간도 없었다. 다만 이것을 山口精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으면 이 도서관은 사라질 것이고,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어서 인수인계했는데, 매일 결손이 계속되어 곤란스러웠다. 우리들의 희망은 하루라도 빨리 경성부 혹은 도에서 경성 일대 도서관을 설립하면서... (중략)”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은 자신들의 도서관을 경성부 또는 경기도가 인수해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윤익선 등에 대한 양도는 이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大阪朝日新聞(오사카아사히신문, 조선판)」 1920년 12월 5일 자 기사에서 윤익선이 이들의 장서를 750円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²²⁾ 이때 장서수는 1만 5천 권 정도였다. 이 숫자는 당시 山口精의 경성도서관 장서량과 비슷한 조선 최대의 장서량이었지만, 조선 유지뿐만 아니라 총독부 및 일본 각지 유지들의 기증도 포함된 것이었다.²³⁾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 도서관이 한국인의 독자적인 최초의 사립공공도서관이긴 하지만 일제와 조선총독부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했고, 장서 대부분도 日書와 漢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당시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조선인이 많이 살았던 경성 북쪽에 있었던 이 도서관의 열람은 무료였고 다른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성황을 이루었고, 후에 부인 열람자도 증가하여 부인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유지비용은 주로 윤익선, 김장환, 윤양구의 사재에 의존했기 때문에 재정 기반은 박약했다. 光文社 운영 이익금과 관우회 회비도 있었지만, 도서관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는데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경성도서관은 1년 후에 조기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경성도서관 건립을 주도했던 윤익선은 결국 1923년 7월 31일 도서관을 폐관한 이후에 만주로 건너가서 1924년 4월에 「간도동흥중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때 취운정 경성도서관의 장서 약 1만여 책도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따라서 윤익선의 경성도서관이 이범승의 경성도

20) 백린은 그의 논문 84쪽에서 이에 대해 창립 당시 수장되었던 장서는 15,000여 책이었고, 설립 도중 유지로부터 기증받은 것은 1,230여 책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1) 「京城日報」 1919.9.27.

22) 「擊雲亭の図書館一往年の貴族会 亭子薬水湧く 楊柳の丘一」の中で、尹益善らは 750円 でその蔵書を買入れたことが明記されている。

23) 「京城日報」1920년 2월 26일 기사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寄贈の図書殺到して忙しい京城図書館」に、ドると、金允植、権重顕など朝鮮人有志の寄贈とともに、朝鮮總督府 日本の各地の有志からの寄贈があつたことが知られる。

24) 宇治郷毅(1985)의 글, 16-17쪽 내용과 함께 李範升의 보고서(『大正十二年度業績報告書』京城図書館, 1924.) 내용 일부에 나타나 있다(「分館に備置シタル書籍ハ尹翊善氏間島二持去シ」と述べられているが、その後あ

서관에서 수행한 분관 역할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李範升의 京城圖書館

이범승(1887-1976)은 일제 강점기 한국 공공도서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다. 이범승의 도서관 설립 운동의 시작에 대하여 宇治郷毅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²⁵⁾

이범승은 1912년, 교토제국대학에 유학하고, 법제사를 연구하고 있었지만, 조국에 동족에 의해 건립된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마음 아파하고 조선에서의 도서관 사업에 헌신할 것을 결심했다. 대학원 재학 중, 1918년 초 상경하여 당시 일본도서관협회 회장인 和田萬吉을 면회하여 도서관 경영에 종사한 그간의 의견을 구했다. 그때 일본도서관협회는 이범승이 조선에서의 도서관 사업에 대한 열의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교토제국대학 출신의 법학사 이범승씨는 고국 조선에 도서관이 거의 없는 것을 깨닫고, 가까운 장래에 사립동속도서관 건립 설계를 세우고, 그 준비로서 이번에 일본도서관협회 和田萬吉회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한바,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간절함에서 본회는 특별히 그에게 『圖書館小識』 일부를 참고자료로 기증하여 보탬이 되기를 원했다.

이어서 이범승은 일본 각지 도서관의 조사연구에 의의를 두고 '東京市立日比谷圖書館'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문필을 통해 조선에서의 도서관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주장은 「京城日報」에 4회 연재된, "도서관을 설립하라-왕세자 경사 기념으로"이었다.²⁶⁾ 이 글에 대해 宇治郷毅는 당시 그의 도서관 사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논설로 평가했지만, 이 기사는 이범승에 대한 친일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이었다.²⁷⁾ 그것은 원치 않은 정략결혼의 피해자가 된 조선의 왕세자와 점령국 일본 황실과의 결혼을 축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도서관을 건설해달라고 사정한 것과 다름없으니 도서관 건립에 대한 그의 의지와 정신을 칭송할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식민지 조선 백성의 마음에 난 커다란 상처를 헤아리지 못한 대표적 친일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이범승이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1918년 봄, 이범승은 渋沢栄一 남작과 児玉秀雄 백작을 면회하고, "도서관이 조선에 필

蔵書の運命にういては不明である).

25) 宇治郷毅(1985) 논문 9쪽 내용과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李法学士の圖書館經營準備」, 『圖書館雜誌』 34号(1918 · 3): 28).

26) 이 기사는 이범승이 毎日申報社 사장에게 보낸 편지로 「京城日報」(日本語판) 1918.5.4, 5.21, 5.22, 5.23에 게재되었고, 같은 기사가 조선어판 「毎日申報」에는 1918.5.17.-23. 사이에 7차례 연재되었다.

27) 이범승은 당시 그의 도서관 사상이 담겨 있는 많은 글을 신문기사로 내보냈다. "兒童教養と母の修養"(「京城日報」 1918.5.26.) "母のへ改良(1)~(5)"(「京城日報」 1918.5.28.-6.1, "京城圖書館と私"(「京城彙報」 11号臨時号 1922. 10). "農民教育の第一歩, 農閑期を利用して諺文を教へよ"(『朝鮮社会事業』 3卷11号, 1925.12) 등이 있다.

요하다는 요구는, 조선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부탁했으나 협조받지 못했다. 다음 해, 다렌 만철 근무시에는 泰東日報 사장 金子雪齋 등의 협력으로 도서관 설립을 기도했으나 이 역시 실패하였다. 이렇게 이 시기 그의 도서관 설립 운동은 일본인 중에 주요 인물이나 유지에게 접근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그의 운동의 결실은 결국 혼자 힘으로 경성도서관을 설립하는 1921년 9월에 이루어졌다(宇治郷毅 1985, 9).

1921년 9월 일본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범승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종로2가 탑골공원 서문 일대 부지 531평과 이왕직 양악대 건물을 빌려 동일한 명칭의 경성도서관을 설립하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윤익선의 도서관을 흡수하여 분관으로 운영하였다.²⁸⁾ 이렇게 하여 1922년 9월 정식 개관한 경성도서관은 개관 첫날부터 많은 인파로 성황을 이루었다. 1923년 7월 28일에는 민영휘 등 유지의 도움을 받아 130여 평 규모의 석조 3층 양옥 신관을 개관하였다. 이때 취운정의 도서관은 폐관되었고 기존 종로의 본관은 아동관을 신설하여 새롭게 단장하여 9월에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이때 최초의 어린이 열람실(아동관)이 만들어졌으며, 이곳에서 빈민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대상 강연이 이루어졌는데 아동문학가 방정환이 연사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로 더욱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경성부의 지원을 받아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²⁹⁾

이범승은 일본을 통해 선진 도서관 사상을 흡수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어린이를 위한 별도 열람실을 설립하였고, ‘동화회’개최, 시청각자료의 배치, 빈민 아동을 위한 보습교육과 야학부의 설치, 청소년클럽 결성, 부인강좌 개최, ‘영화회’와 견학 모임 등 다양한 부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휴관을 거듭하다가 폐관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경성부에 양도된 경성도서관은 1926년 4월 1일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개칭되어 도서관으로서의 명맥은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영상 부채와 관련된 의문점이 기사화되었다. 「每日申報」1926년 4월 26일자에는 “理由를 알 수 없는 四萬圓 負債設 [경성도서관인계문제- 매년 800원씩 이익이 있는 터인데 사만 원 부채는 의문]이라는 제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내 반향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요사이 조선인 유식 계급 사이에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경성도서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장으로 있는 이범승씨가 경성부에 인도할 때 말하기를 그 도서관으로 인해 진 빚이 사만여 원에 달하니 그것만 경성부에서 갚아주면 모든 것은 무조건 인도하겠다고 한 것이요, 결코 팔아먹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데 이를 모두 인계해온 경성부의 말을 들은즉, 그 도서관에 비치한 서적은 모두 1만 1천 3백 권으로서 그중에는 漢書나 地圖 같은 것이 많아서 총 가격을 치더라도 1만 9천 원이요, 그 관사는 시가로 1만 8천 원 밖에 되지않는 데 관사를 건축할 데에는 민영휘씨로부터 1만

28) “前途洋洋한 도서관, 범위를 확장하여 사동은 본관, 취운정은 분관으로 변경”(每日申報 1921.11.17).

29) “主人 찾는 京城圖書: 삼만원의 빚만 갓하버리면은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잇서”(時代日報 1924.11.18).

1천 원의 보조를 받은 것이 있고 또 오늘날까지 이범승씨가 그 도서관을 경영하는 데는 매년 수입이 1천 원이요, 경성부 보조가 7천 원이요, 국고 보조가 1천 원이요, 경기도 보조가 3백 원이며 아직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만철에서 1년에 얼마씩 보조를 하였다는 말도 있는바 연 경비는 이범승씨의 계산에 의하면 8천 5백 원이라고 한 즉, 알지 못하는 만철 보조는 떼어놓고 보더라도 매년 남는 돈이 800원은 되었던 것이라고 하던데 이 같은 만년 이익을 남기고도 빚을 4만 원이나 졌다는 것은 자못 의문이라더라.³⁰⁾

宇治郷毅 또한 경성도서관은 처음부터 재정 면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은 매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범승 개인의 부담에 의지하였던 것과 지출의 3분의 1이 은행 이자 상환에 쓰였다는 점이다. 조선인 유지의 기부도 있었고, 또한 조선총독부, 경성부의 보조도 있었지만, 경성비 대부분을 기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안정성을 항상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입장료(하루 1회 2전, 1개월 정기 열람료 40전)도 징수했지만, 모든 수입의 10분의 1도 채워지지 않았고, 또 이범승은 경영 안정화의 일단으로 재단법인 설립도 기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宇治郷毅 1985, 17).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정은 훗날 경성도서관의 후신인 '시립종로도서관장'을 지낸 이흥구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3년도 결산서를 보면 수입이 총 13,373원 64전이고 그 내역은 국고 보조 1,000원, 경성부 보조 1,200원, 조선교육회 1,500원, 입관료 835원 14전, 민영회 2,000원, 장헌식 100원, 오경선 10원, 설립자 6,728원 50전이였다. 이에 비해 지출은 급여 3,202원 50전, 관비(운영비) 2,140원, 식산은행이자 2,398원, 기타 여러 은행 이자 647원 51전, 채등기 수수료 233원 50전, 도서·표본 및 이화학 기구 4,761원 90전 등이다. 전체적으로 경상비의 50%를 경영자가 부담하고 지출의 34%를 채무 이자로 지불해 온 구조다. 부채액은 매년 늘어나 1926년 초에는 37,679원 27전에 달했다(이흥구 149-150). 이렇게 부채를 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도서관 신관(1922년 가을 착공, 1923년 6월에 준공) 건설에 따른 것이다. 이 건물은 처음에 민영회의 1만 원과 조선교육회 및 여러 인사의 회사와 은행대부로 만든 것인데 초기 비용보다는 이후에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은행 이자에 따른 부채가 계속 늘어나 운영난이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이흥구 146).

이러한 주장들은 계상 연도와 경성부 보조금 산정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무리한 건물 신축에 따른 은행 이자 부담이 가장 큰 문제였고, 경성부 양도 과정에서 운영권을 넘기면서 건물값이나 책값 보상 등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좀 더 치밀한 자료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경성도서관은 여러 단계의 여러 과정을 거쳐 1926년 4월 1일자로 경성부

30) 이 글은 「每日申報」 1926년 4월 26일 자, 글의 내용을 현대어 수준으로 고쳐 쓴 것이다.

립도서관³¹⁾종로분관이 되었고, 다시 해방 후인 1945년 9월 18일 ‘서울시립도서관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립 종로도서관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³²⁾

지금까지 살펴본 경성도서관과 분리해서 1920년대 한국의 도서관 역사의 특징을 보면, 경성도서관은 물론 총독부도서관의 설립과 주요 공립도서관이 이때 대부분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경성 지역의 도서관들은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이후 한국의 도서관 역사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장서수로 볼 때, 조선총독부도서관, 철도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부산부립도서관, 평양부립도서관 5개 관이 전체 52개 도서관³³⁾의 장서 36만 여권 중에 약 80%를 차지하였다. 예산에 있어서도 경성부립도서관과 평양부립도서관이 연 경상비 5천원으로 당대 서구 도서관에 비해서는 빈약한 것이었지만, 조선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이었다(宇治郷毅 1988, 6-7).

이로 볼 때 당시 경성 지역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이 전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한 연구과제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도서관의 역사는 교육·문화 측면의 거시적 관점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까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라는 폭력체계와 강제로 이식된 제도적 틀이 있는 반면에,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개별적 개인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다양한 삶까지를 포함하여 도식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일제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192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경성유람안내도(京城遊覽案内圖)에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표시하고 안내한 지도가 있었고, 1934년에 만들어진 대경성부대관(大京城府大觀)에도 ‘도서관’이란 명칭이 지도상 크게 표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대 도서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도서관들은 지금의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옛 지도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는 <그림 2>와 같았다.³⁴⁾

이러한 지도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듯이 1920년대의 경성의 도서관들은 경성부청(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과 경성부립도서관, 그리고 종로의 경성부립도서관종로분관과 용산의 경성만철도서관이 밀집되어 있다. 과거 덕수궁의 重明殿도 고종의 황실도서관이었음을 고려하

31) ‘경성부립도서관’은 1922년 10월 5일 중구 명동 2가 25번지 구 한성병원 건물을 도서관으로 개수하여 개관하였고, 1927년 5월 중구 소공동 115번지 대관정 자리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1928년 6월 중구 소공동 115번지에 청사 신관을 준공하였다(철근 콘크리트 3층 총 671.8평). 이후 1964년 12월 31일 현 위치인 용산구 후암동 30-84번지로 신축 이전(철근 콘크리트 5층, 총 9,329.37m²)하여 현재 서울교육청 남산도서관으로 존속하고 있다(홈페이지 연혁 참조).

32) 서울교육청 종로도서관 홈페이지 연혁 참조.

33) 1932년 朝鮮總督府 통계연보 기준으로 관립, 공립, 사립도서관을 합하여 52개 관이 설립되어 있었다(宇治郷毅 1988, 17).

34) 그림 ①은 1920년대 후반 경성유람안내도(京城遊覽案内圖)의 일부, 그림 ②와 ③은 1935년 대경성부대관(大京城府大觀) 지도의 일부, 그림 ④는 1940년대 후반 서울특별시 지도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안내도와 지도는 모두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검색 결과를 통해 입수한 것이며, 대상 자료에서 관련 부분을 편집한 것이다. (<https://museum.seoul.go.kr>) [cited 2020.2.3].

면, 이 지역의 도서관 집중 현상은 당대의 권력 관계와 사회교육을 통한 일본의 통치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p>① 京城遊覽案内圖, 위쪽이 조선총독부도서관, 아래 쪽이 경성부립도서관을 나타내고 있다.</p>	<p>③ 大京城府大觀, 오른쪽이 조선총독부도서관, 왼편에 상공회의소 근처가 山口精의 京城文庫 자리로 추정된다.</p>
<p>② 大京城府大觀, 오른쪽 위, 경성부립도서관종로분관(옛 경성도서관)</p>	<p>④ 1940년대 후반, 서울特別市街圖</p>

〈그림 2〉 1920-40년대 지도에 나타난 경성의 도서관

IV. 결론

일제 강점기 경성도서관의 존재는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구의 근대화된 도서관의 모델과 사상을 일본을 통해 이식받았지만, 신지식을 통한 애국 운동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일제 강점기 내의 경성도서관의 변천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 밝혀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08년 山口精이 설립한 경성도서관은 일본인 경성상업회의소의 전문도서관 역할로 출발하였지만, 일반 대중에게도 열람 봉사를 제공했고 경성에 유일한 도서관으로서 1919년까지 존재했다. 이 연구를 통해 장서 및 이용현황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둘째, 山口精의 경성도서관이 폐관된 이후, 1920년 8월에 개관한 만철경성도서관이 당시 유일한 경성의 도서관으로 일정 기간 공공봉사를 수행했다.

셋째, 1920년 12월, 尹翊善 등에 의해 만들어진 최운정 경성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은 山口精의 경성도서관에서 구입한 것이었지만 직접적인 인수인계는 없었다. 또한, 이 장서들은 윤익선이 간도 동흥중학교 교장으로 옮겨갈 때 대부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漢書와 日書를 제외한 일부 신간 서적만이 이후에 이범승이 운영한 경성도서관을 거쳐 오늘에 종로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넷째, 이범승은 일본을 통해 선진 도서관 사상을 받아들였고, 한국에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해 일본 언론 및 도서관계를 통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1921년 9월 조선총독부를 움직여 탑골공원 서편 일대에 경성도서관을 세웠고, 다시 1923년 7월 본인의 사재와 기부를 받아 신관을 건립하여 성황리에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관하였다. 폐관과 동시에 경성부가 인수하여 1926년 4월 1일 자로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할값 양도에 따른 비난 여론이 제기되었고, 지나친 은행 이자 부담 등 경영 부실의 책임이 이범승에게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섯째, 山口精의 경성도서관 장서는 이후 두 경성도서관에 일부 계승되었고, 양 도서관은 당대에 활발하게 운영되었지만, 운영 비용 조달 등 경영은 부실했고 일제의 영향 아래서 독자적인 발전은 제한적이었다.

여섯째, 경성 지역의 도서관 정책은 일제 강점기 조선교육령을 통한 사회교육의 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 영향은 한국에 설립된 전체 도서관에 미쳤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성도서관’이라는 제한된 틀에서 경성도서관의 변천사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동안에 형성된 ‘경성 지역의 공공도서관’ 전반을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 시각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편. 2019. 일제강점기 도서관의 기능과 독서문화. 『도서관 이야기』, (12): 4-9.
- 권은경. 1981. 개화기·일제치하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1). 『도서관연구』, 22(4): 7-29.
- 권은경. 1981. 개화기·일제치하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2). 『도서관연구』, 22(5): 17-30.
- 박희영. 1963. 근세한국공공도서관사초(1901-1945). 『도협월보』, 4(5): 212-216.
- 배홍식. 1976. 京城圖書館 設立에 관한 史的 考察. 『종로도서관보』, 8호: 36-43.
- 백린. 1973. 京城圖書館에 관한 小考. 『남산도서관보』, 80-86.
- 山口精. 1911. 『朝鮮産業誌』上·中·下卷, 서울: 寶文館, 1910-1911(복간 民俗苑, 1992).
- 山口情. 1917. 『京城圖書館概況』. 京城: 京城圖書館.
- 송민호. 2017. 근대적 지식체계와 초월적인 예술의 도정. 『인문과학연구논총』, 38(1): 93-125.
- 송승섭. 2019. 白隣의 『韓國圖書館史研究』에 관한 批判的 考察. 『인문과학연구논총』, 40(3): 203-227.
- 안춘근. 1975. 韓國圖書館史箋註. 『도서관』, 30(9): 32-36.
- 奥田浩司. 2016. 研究ノート 京城圖書館の設立と利用状況についての一考察. 『国語国文学報』, 74: 35-46.
- 宇治郷毅. 1985. 近代韓國公共圖書館史の研究—開花期から1920年代まで—. 『參考書誌研究』, 30: 1-22.
- 宇治郷毅. 1988. 近代韓國公共圖書館史の研究—植民地期を中心に—. 『參考書誌研究』, 34: 1-27.
- 유재아. 2008.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화한서분류표 연구. 『도서관보』, 130호: 98-123.
- 윤금선. 2009.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375-407.
- 李範升. 1924. 『大正十二年度業績報告書』 京城: 京城圖書館.
- 이흥구. 1964. 京城圖書館略史. 『도협월보』, 5(4): 2-7.
- 日本圖書館協會. 1918. 「李法学士の圖書館經營準備」, 『圖書館雜誌』34号: 28.
- 朝鮮總督府. 1928. 昭和元年度市政年報. 172-173.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2009. 『친일인명사전』 제2권.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 기타 신문자료 낱자 인용과 참고자료로 간접 인용한 일본어 자료는 각주에 표시하였음.
전체적으로 실록과 신문기사, 사진 등의 자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동아일보아카이브 (http://www.donga.com/pdf/archive/archive_help.html),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등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활용함.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Chun-Geun. 1975. The Annotation on the Library History in Korea. *The Library*, 30(9): 32-36.
- Bae, Hongsik. 1975. A Study on Establishment of Kyungseong Library. *The Library*, 30(9): 36-43.
- Kwon, Eunkyung. 1981. A Study on the Public Libraries in Korea Under the time of enlightenment and Japanese Colonization(1). *The Journal of Library Research*, 22(4): 7-29.
- Kwon, Eunkyung. 1981. A Study on the Public Libraries in Korea Under the time of enlightenment and Japanese Colonization(2). *The Journal of Library Research*, 22(5): 17-30.
- Lee, Honggu. 1964. The Brief History of Kyungseong Library in Korea. *Dohyeop Wolbo*, 5(4): 146-151.
- Park, Hee Young. 1963. The Survey of Korean Library History in Early modern Period. *Dohyeop Wolbo*, 4(5): 212-216.
- Paik, Rin. 1973. A Brief Study on the Kyungseong Library. *The Journal of Namsan Library*, 80-86.
- Song, Minho. 2017. Aesthetical Transcendence in the Modern Knowledge System -The Modern Library in Kyungseong(京城) and the Knowledge Representation of Yi-sang's. *The Journal of Humanities*, 38(1): 93-125.
- Song, Sung Sup. 2019. A Critical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in Korea' of Rin Paik. *The Journal of Humanities*, 40(3): 203-227.
- Yeun, Keum-Sun. 2009. A Study on Social Education, Reading Movement and Meaning of the Gyeongseong Library Which Observe From Ethnic Viewpoi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375-407.
- Yoo, Jae Ah. 2008.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Table of Japan and Chinese Books in the Library of K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Doseogwanbo*, 130: 98-123.